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선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술창업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

2021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예술창업학과 문화예술창업학전공
임 지 영

예술창업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

장 선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예술창업학과 문화예술창업학전공


임 지 영


인 준 서

임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월

심사위원장 심 상 민 (인) 

심 사 위 원 장 선 희 (인) 

심 사 위 원 지 상 철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예술 창업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술이라는 미학적 담론과 창업이라는 현실적 실행이 어떻게 하면 잘 스며들어 어우러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즉 예술 감수성과 선한 영향력의 효과를 확신했습니다.

10년간 실제 갤러리를 운영하며, 사회공헌사업을 오래도록 함께해오고, 예술 취약 계층에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해보니, 예술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덕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이나 기관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몇가지 제언들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심층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술계를 위한 지원이 아닌 앞으로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창업, 사회적 가치는 서로 긴밀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선순환 할 수 있고,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표	3
II. 본론	4
1.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분석	4
2. 대안적 사업 설계와 수요 조사	11
3. 사업 수행 결과와 시사점	22
III. 연구 결과 : 아트위드 × 사회공헌사업 제안	23
IV. 결론	3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사회공헌의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	4
<표2. 각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조사>	10
<표3. 아트위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12
<표4. 아트위드 수상실적>	21
<표5. 아트위드 캠페인 제안>	28

그림 목 차

<그림1. 미술시장 현황>	1
<그림2. 아트위드 플랫폼 정의>	11
<그림3 .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 보고서>	14
<그림4. 아트위드 플랫폼 소개>	16
<그림5. 아트위드 사회공헌 자료소개>	18
<그림6. 오프닝 리셉션과 포스터>	19
<그림7. 팀 구성>	20
<그림8. 장애친구의 코끼리 그림>	23
<그림9. 예술품 굿즈 사진>	24
<그림10.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서>	28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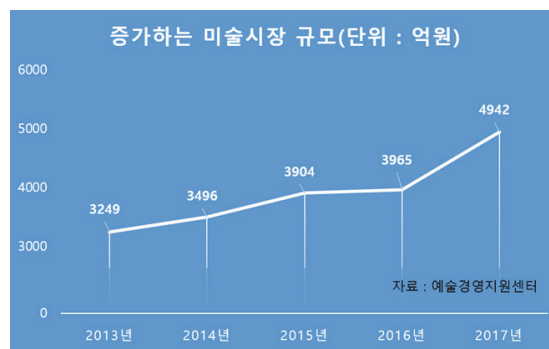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예술은 그들만의 리그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가파른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이기도 하다. 예술의 현주소와 가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예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 20년간 예술은 지속적인 성장세였다.

특히 미술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예술 창업의 증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증가와 비대면 시대의 개인 취미 예술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그 방법으로서의 예술이 몹시 효과적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미술시장 현황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끌고 있는 비영리 법인 <서초문화네트워크> 단체에서 지난 4년간 전국 보육원 50곳에 그림 1000점을 기증했다.

보육원의 시설들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았다. 잘 먹고 키우는 사회 복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데 반해, 문화 예술 복지는 아직까지 생소하고 취약한 분야다.

예술은 가진 자들, 혹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호도되기도 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편견도 많다. 하지만 바야흐로 예술의 시대다.

예술의 가치와 순기능은 이미 증명된 바가 많다.

외국의 엘시스테마나 뉴욕페인팅스쿨등, 예술의 사회순환의 좋은예도있다.

예술의 순순환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사람의 행복은 감성에서 온다. 인문학은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고 예술은 사람에게 행복을 알려준다. 우리가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의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 저변에 예술 복지를 확산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지난 몇 년간 전국 보육원을 중심으로 소외 계층 시설들의 예술 보급 실태에 대해 알게 됐다. 전국 사회 복지 시설, 양로원, 장애인 시설, 교화 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은 전방위적이다.

물론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나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여태껏 모든 문화 예술 복지는 단발적인 이벤트에 머물러 왔다. 공연 관람이나 전시회 관람, 각종 체험 학습 등 일회성이 대부분이다.

예술은 환경이다. 환경으로써의 일상적 향유가 필요한 것이다. 문화 감수

성은 그런 일상적 누림에서 성장한다. 문화 격차는 삶의 질의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고 그 간극 또한 문화가 메꿀 수 있다.

고영직의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또한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영유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신중년을 아우르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 예술의 수혜자이자 향유자가 되는 날까지 문화 예술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2. 연구 목표

예술 복지는 사회 가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아트워드>라는 예술창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사회공헌 사업(CSR)에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현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기업 CSR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예술 복지를 구현해 갈 계획을 도모해본다.

이 연구는 지식 목적이 아니다. 행동이 목적이다.

예술 사각 지역에 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한 점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될 것임을 믿는다.

예술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 될 것임을 믿는다.

II. 본 론

1.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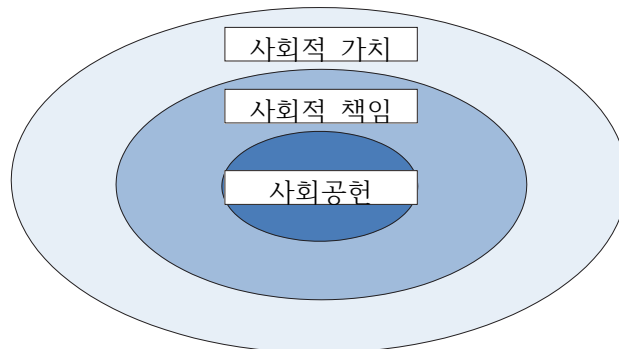
1) 사회공헌에 대하여

요즘은 사회공헌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라고도 이른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나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으며,新 공동체 의식이 정립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 측면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은 같은 의미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 가운데 여러 가지 비인간적 문제가 야기되 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고객에게 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그리고 경쟁 기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으로써 유용하다.

<사회공헌의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



<표 1> 사회공헌의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

사회적 가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이념적 가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 조직에 부여된 사회구성원으로 갖는 책무성

사회공헌- 조직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실무적/실천적 활동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나 관점이 변화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2) 사회공헌의 유형

기업의 사회 공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본 연구는 국내 주요기업의 사회공헌의 유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공헌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Kotler(2007)가 제시한 사회공헌 활동의 여섯 가지 유형을 활용한다.



(1) 공익 캠페인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

(2) 공익과 연계한 마케팅

특정 상품의 판매량과 수익을 기준으로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을 기부

(3) 사회 마케팅

공익캠페인과 유사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 마케팅

(4) 기업자선

사회공헌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선 행위

(5) 지역사회 자원봉사

임직원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방식

(6)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practice)

기업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발적인 (법적&규제에 의한 강제가 아님) 활동을 추진 (ex.교육, 에너지 절약, 작업공정의 개선 등)

3) 사회공헌의 사례

민간 기업의 사회 공헌 사례를 알아본다.

국내5대 그룹(기업 규모를 기준으로)인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을 선정,, 사회공헌 우수 사례로 언급되는 CJ그룹을 사례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1) 삼성전자

-교육기부: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 (삼성 스마트스쿨 등 3건)

-기술혁신: 혁신적 기술의 발달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등 2건)

-환경보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환경보존 (녹색경영 실천 등 4건)

-지역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 (삼성전자 임직원 봉사단 등 14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2) 현대자동차

-드림무브: 청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등 15건)

-넥스트무브&이지무브: 계열사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된 사회공헌 (현대 드림센터 등 14건)

-세이브무브: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교육 (키즈오토파크 등 7건)

-그린무브현대: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 (현대그린존 프로젝트 등 6건)

-해피무브: 지역사회 및 해외봉사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등 16건)

->자동차 기업의 이미지 활용하여 '00무브' 라는 활동을 연계
창업 및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중심

(3) SK그룹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및 장학사업 (SUNNY등 3건)

-자원봉사: 구성원 참여 중심 자원봉사 (행복나눔계절 등 3건)

-글로벌 사회공헌: 해외 인재양성 및 의료환경 개선 (중국SK극지소년강 등 3건)

-사회복지/환경: 무주택자 지원, 공원조성 (수원 해비타드 등 3건)

-혁신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및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등 2건)

-기타: 자회사별 사회공헌 활동 (SK이노베이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12건)

-> 인재육성 및 사회발전 측면에서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초점

(4) LG그룹

-대표사업: LG그룹이 강조하는 대표적 사회공헌 (LG 의인상 등 15건)

-나라사랑: 독립 유적지 환경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유적지 보호 등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등 4건)

-소외계층지원: 다양한 소외계층(지역사회, 청소년 등 집단별) 지원프로그램 (척수장애인 가정 U+ 우리집AI홈 IoT 서비스 보급 등 18건)

-청소년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반짝반짝페리오 등 12건)

-환경보호: 환경보호 활동 (그린 독도 공간 가구기 등 3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라사랑’ 과 관련된 사회공헌 콘텐츠를 강조

자회사별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ex. LG디스플레이(눈건강), LG생활건강(양치습관 교육), LG CNG(코딩 교육), LG유플러스(인터넷 보급)등

(5) 롯데그룹

-여성 및 아동: 아동의 놀 권리 방과 후 돌봄, 워킹맘에 대한 지원 (mom편한 놀이터 등 9건)

-나라사랑: 군장병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헌을 추진 (청춘책방 등 8건)

-글로벌: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롯데

데백화점 베트남 롯데스쿨 등 5건)

-상생: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롯데제과 스위트박스 등 21건)

-참여캠페인: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금 캠페인 추진 및 에너지 및 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 (마음온도 37도C 캠페인 등 9건)

->여성, 아동, 군장병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타 기업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수가 많음

(6) CJ그룹

-계열사별 사회적 공헌 사업을 추진

-CJ CSV: 베트남 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적 생태계 구축 (즐거운 동행 등 3건)

-CJ제일제당 & CJ푸드빌: 건강한 식생활 형성 및 식품 기부 (건강식생활 형성을 위한 제품 출시 등 9건)

-CJ 프레시웨이: 농가 및 협력업체 대상 지원 (프레시원 등 6건)

-CJ 대한통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헌 (노인 도시락 배달 ‘희망 도시락’ 등 5건)

-CJ ENM: 신인 창작자 지원 등 문화 활동 지원에 초점 (신인 창작자 지원 ‘오픈’ 등 10건)

-CJ 올리브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공헌 체계를 구축 (핑크박스 나눔 캠페인 등 6건)

->기업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식생활 개선, 협력 업체 지원, 배달, 여성지원 등에 초점

CSV(Creation Share Value)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나눔재단, 문화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

각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표 2> 각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조사

그룹	주요활동	활동의 특성
삼성그룹	-삼성드림클래스: 도서 벽지 지역 중학생 대상 교육 지원사업 -연말 아웃 사랑 성금: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참여	-교육 접근권 및 교육복지의 강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캠페인: 저소득층 대상 창업용 차량을 지원 -H-점프스쿨: 대학생을 미래 핵심 인재로 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 제공	창업 및 인재육성을 통한 사회의 경쟁력 제고
SK그룹	-행복나눔재단: 400개 사회적 기업에 투자, 판로 지원,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 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 사회적 기업의 발굴, 성장, 발전 등을 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 확대
LG그룹	-LG의인상: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위로금 전달 -유토로핀 지원 사업: 저신장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제 지원 사업	-공익기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특정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 지원
롯데그룹	-롯데 엑셀레이터: 스타트업 대상 창업 지원금,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 등 제공 -슈퍼블루 캠페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경제적 가치의 공유 및 기업 육성 -사회적 약자의 인식개선 및 자립강화
CJ그룹	-베트남 농촌개발 CSV사업: 선진 농업 기술의 개발 및 현지 농산물의 판로 마련 -즐거운 동행: 중소기업과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실버 택배: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산업생태계 구축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증대,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선순환 되고 있다. 즉, 사회 공헌이 ‘비용’ 이 아닌 ‘투자’ 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대안적 사업 설계와 수요 조사

2020년 1월부터 아마추어 예술 생산자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www.artwith.co.kr 개발, 운영하고 있다. 아마추어란 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지만, 예술을 좋아하고 배우고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실, 직업으로서의 예술은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마추어란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모두를 의미한다. 실제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출중하여 놀랐다. 아트위드는 삶에서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모두와 함께하며,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예술기부 플랫폼으로 확장중이다.



<그림 2> 아트위드 플랫폼 정의

- ▶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한 온라인 URL 갤러리를 구축하고
- ▶▶ 예술품 및 굿즈 유통이 가능하다
- ▶▶▶ 오프라인 전시 주관 및 판매에 힘쓰고
- ▶▶▶▶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예술 복지를 함께 한다.**

<표 3> 아트워드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예술향유자(소비자)	예술매개자(갤러리)	예술생산자(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향의 발견 - 시장의 다양화 - 예술적 삶의 질 향상 - 예술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기반 기술로 갤러리 접근성 용이 - 전시작품 외 미전시 작품 홍보/판매 - 새로운 예술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설 전시관 확보 - 예술가 진입 경로 확보 - 상설 판로 개척

- ▶ 아마추어 예술 생산자에게는 기회와 동력을!
- ▶▶ 예술 소비자에게는 향유와 사회 가치 실현의 기회를!

2) 예술의 순기능, 예술의 선순환!

- ▶ 기업에게는 사회 공헌 범주의 확대와 확산을!
- ▶▶ 예술 취약계층에게는 예술 복지와 행복의 기회를!

아트워드는 문화예술에 대한 Needs와 모바일 시대의 Trend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며, 예술소비자, 예술매개자, 예술생산자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언한다.

2-1. 아트워드 시장성 조사

문화예술 아이템 <아트워드>로 창업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초기 창업패키지> 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였다. 문화 예술 아이템에 대해선 처음에 프리젠테이션 당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선정 후에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비전을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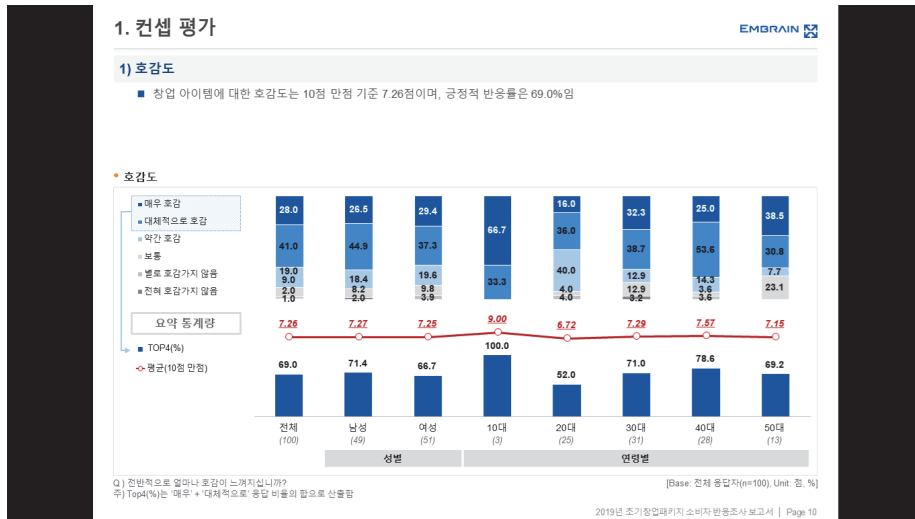
보고자 (주)엠브레인과 함께 2019 초기창업패키지 소비자 반응조사를 했다. 박지영의 ‘창업가의 생각노트’에서 이야기하듯 다른 학문과 다르게 마케팅만 유일하게 ing로 끝난다고 한다.

시장은 살아있는 고객들로 인해 형성되고 반응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변한다고. 따라서 소비자 반응 조사의 질문을 정성껏 만들어 정성 조사에 임했다.

조사는 10대에서 50대까지 남녀로 정했고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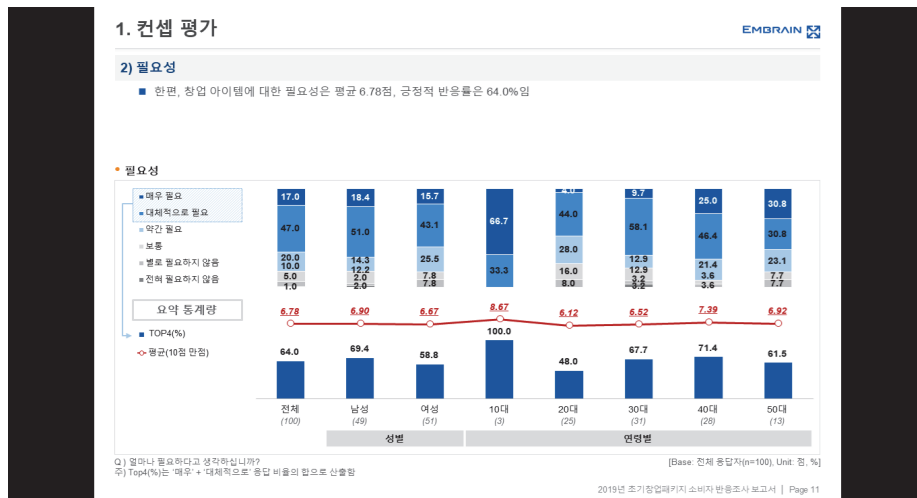
1) 아마추어를 위한 예술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감도 질문에 10점 만점 기준 7.26점이며, 긍정적 반응률 69%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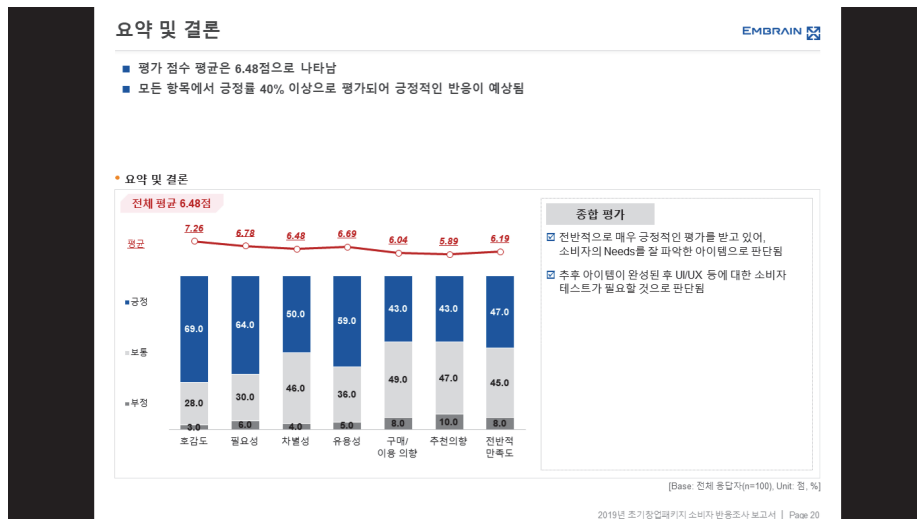
2) 아마추어를 위한 예술 플랫폼은 필요한가?

필요성 질문에 10점 만점 기준 6.78점이며, 긍정적 반응을 64%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3) 아마추어 등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예술 플랫폼의 비전은 어떤가?

질문에 평균 6.48점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한 아이템으로 판단됐다.



<그림 3>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플랫폼 Art with>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예술창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컸고,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한 플랫폼 아트위드에도 긍정적 반응이었다.

필요성 질문에 10점 만점에 6.78점으로, 긍정적 반응을 64%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10대가 더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아 예술의 효용성을 잘 느끼고 있다고 보여졌다. 생활 속에서 예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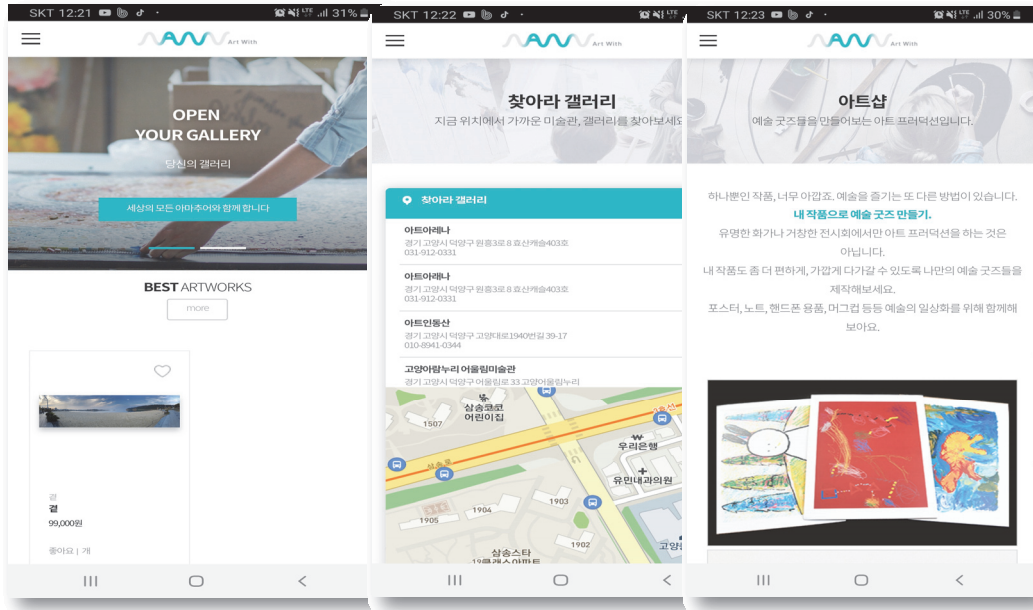
비전에 대한 질문에도 현실적인 40대 이후는 호감도는 좋으나 현실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우려를 알 수 있었다. 구매의향이나 추천의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미루어 성인이 될수록 예술의 영향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기획과 마케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을 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해 나가려고 모색 중이다. 예술은 어느 한세대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모두의 향유 가치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2. 아트위드 모바일 웹 소개

- 아트위드는 문화예술의 당사자들인 갤러리와 예술가를 비롯, 예술가를 꿈꾸는 모든 예술활동 인구를 타겟으로 예술 저변을 확대한다.
- 아트위드는 아마추어 예술가와 예술 취약 계층을 연결, 예술의 선순환 지향한다.

www.artwit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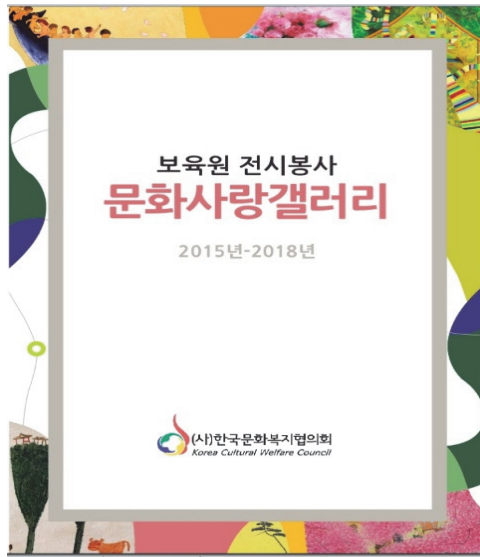


〈그림 4〉 아트워드 플랫폼 소개

2-3. 아트워드 사회공헌 활동

1) 예술 취약 계층에 그림 기증

- 예술가, 갤러리들과 협업하여 전국 예술 소외 지역과 예술 취약 계층에 예술 기증 기여 프로그램 지원하였다.
- 예술의 선한 영향력, 선순환 구조의 확보하였다.
- 지금까지 전국 50여개 보육원에 1000여점 그림 기증 완료하였다.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전시봉사 사업 소개

▶ 전시봉사는
 문화적 환경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그림, 사진, 조각, 서화 등의 예술 작품을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돕고 수혜자들의 문화 역량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 ▶ 전시봉사 진행 과정은**
- ① **사실선정회의**
 - ② **시설 답사** : 복지시설에 전시봉사가 가능한 기관인지 현장 시설답사에 대한 사진, 도록, 표기장 등을 제공하거나 수령 받음
 - ③ **작품 모집** : 작품 기증을 홍보하여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모집, 후원 사물에 맞는 배너 제작이 가능, 필요할 경우
 - ④ **시설 방문시 현장물이 작품도 제작할 기회를 줌**
 - ⑤ **작품 제작** : 사설에 맞춤형 작품 제작
 - ⑥ **작품 전시 전달** : 업무연속이 어려운 작품과 운영상으로 일부 작품은 후원자들이 현장에 직접 시설에 방문, 전시 봉사를 직접하여 설치 가능, "문화사랑갤러리" 홍보 부스
 - ⑦ **후속 작업** : 작품 설치 후 지속적인 방문에 작품 교체 등을 실시하여 장수되고 전시효과 극대화 되도록 노력

▶ 전시봉사자의 역할은
 문화봉사자들이 기관 답사, 작품 모집, 작품 신탁 및 제작, 전시봉사 활동 등을 직접 진행합니다. 현재 40명의 전시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시봉사 사업 과정



작품 기증 홍보 전시 작품을 기증해주실 작가 설득 기증서와 표기장 전달 / 복지시설에 전시 봉사 가능한 곳인지 답사 및 현장 기증작품 내용 및 수령 검토



시설에 적합한 작품의 약 3배수 선정 / 복지 시설 입소생들이 직접 선택한 작품과 전시봉사 기획위원들이 선정한 작품들로 제작



전시봉사 기획위원 및 운영봉사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작품 설치 / "문화사랑 갤러리" 명제 부착 및 지속적인 방문과 작품 교체 등을 실시하여 관계 유지 노력



전시봉사 소개글

보육원을 갤러리로... 전시봉사의 영역을 새로 개척했습니다!

평화한 보육원의 벽들이 아름다운 예술로 가득차 있습니다.
'외사주에 신성보다보니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관심 갖기 힘들었어요.
그림을 걸고 보니 얼마나 분위기가 따뜻하니 저희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좋아합니다.'

보육원의 전시봉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보육의 공생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수석사 서양미술까지
5군데의 보육원이 모두 멋진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복지란 바로 이렇게 지극히 아이들의 감수성 향상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문화의 시대는 문화적 삶을 살아가는 중에 키워지는 개인의 역량이 발전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참미미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속에서 개개인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그림 한 점을 보며 웃음 짓고 눈물도 두는 그런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해팀은 지속적인 문화 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도와주신 이사님들, 지문위원님들, 작품 기증을 해주신
장기님들과 전시봉사자님들, 그리고 동행해주신 보육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사업 협찬을 해주신 GS칼텍스, 사회적기업명도금액,
주님이생애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봉사자 일동

<그림 5> 아트위드 사회공헌 자료소개

2) 아마추어 예술가 전시회 주관

-2020년 1월 7일-21일 통인갤러리

10인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가들을 모아 전시를 기획했다.

10대 영재 소녀에서 90대 할머니까지, 시각 장애 친구부터 변호사, 의사까지
예술 앞에 모두 평등하고 따뜻하게 만났다.

그것은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오프닝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깊이 존중했고 감동했다.



아트위드U 展

좋아서 예술합니다.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아티스트입니다.

Art WITH YOU!

일시 | 2020년 1월 6일(MON) ~ 20일(MON)
장소 | 복합문화공간 '카페 통인'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www.artwith.co.kr 에서 주관합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아트위드와 함께합니다.


AAWV...






<그림 6>오프닝 리셉션과 포스터

3) 팀 소개 대표 임지영

최근 실적

- 2010년부터 갤러리를 시작하며 예술과 가까이 살았다. 예술이 그들만의 리그로 괴리되어 있음이 안타까워 그간의 경험과 생각을 한 권의 책 <봄맞고 그림>으로 출간함.(2019년 도서출판 연두)
- 예술은 교육이 아니라 환경임을 알리고자 2014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 주관함.
- 2014년부터 (비영리단체) 서초문화네트워크를 조직, 매년 <문화예술축제자 양성교육>을 기획, 주관.
- 2017년부터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문화소외지역인 보육원에 그림 전시 봉사를 시작, 현재 전국 20군데 보육원에 그림 설치 완료.
- 2018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예술탐방 프로그램 (갤러리 탐방,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 주관중.
- 각종 예술 축제를 기획하며 예술환경의 저변확대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 우리 예술가들의 열악한 환경에 보다 합리적인 제안의 필요성 절실.
- 우수한 초보 예술가들의 자존감 회복 절실.
- '예술을 일상적으로, 일상을 예술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운동에 앞장섬.



큐레이터 이소연

큐레이터 (경력20년)

학력사항




- 동덕여대 미술대학 졸업
- 예술의 전당 기획 큐레이터
-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 갤러리 신시 큐레이터

주요 경력 사항



- 2012년 SEOUL PHOTO 2011 COEX
- 4년간의 기획 [르네상스의 천재화가들], 아시아최초 바티칸박물관전
- 2013년 체코의 국민화가 알폰스무허름 유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전 235점 국내최초전시
- 롯데중소평과 함께하는 [희망찬가] 힐링미술 이야기 강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능기부 봉사

최근 실적

- 전시기획만 잘하는 큐레이터 라기보다 작품판매와 전시홍보,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멀티태이너 큐레이터 2019년 갤러리 예술관련 유튜브 보조출연
- 2013년~ 2017년 신시컴퍼니 수석 큐레이터 갤러리신시 기획전 다수
- 2019년 KATSUSUKE CHIBA "춘하추동" 전 일본의 국민사진가 KATSUSUKE CHIBA 개인전 경인미술관(2019. 01. 16 ~2019. 01.29)



<그림 7> 팀 구성

4) 아트워드 수상 실적

<표 4> 아트워드 수상실적

수상 경력	년 도	대회명	수상내역(아이템 또는 사업명)	시행기관
	201 9	모의투자 클라우드 펀딩 대 회	3위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아트워드	클라우드
	201 9	한화드림플러스 스타 트업 홍보 대회	아트워드 홍보영상 촬영	한화
정부·지 자체 지원사업 수혜현황	년 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처
	201 9	초기창업패키지	50,000,000	중소기업 벤처부
창업육성 프로그램 참여 현황	년 도	사업명	지원내용	시행기관
	201 9	지역창업한마당투어	홍보부스 및 인프라	성북구청
	201 9	여성 CEO Alumni콘서트	사업네트위 킹	성신여대
	201 9	옴니채널 마케팅	홍보영상 및 마케팅지원	성신여대
	201 9	초기창업 역량강화 네트워크 워크 숍	멘토 매칭	성신여대
201 9	고려대학교 투자IR대회	네트워킹	고려대학 교	

	년 도	내용
업무협약 (MOU) 또는 사업계약 경험	201 9	문화복지협의회 업무협약 - 예술 취약계층에 그림 전시 봉사 협업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협약
	202 0	하이트진로음료 MOU -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해 전시 후원 및 기증 사업 동참

3. 사업 수행 결과와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과 아트위드의 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았다.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고 있고 그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아보니 아직까지 예술분야의 확장성은 미비하며 기존의 작가군이나 전시 지원, 공연 등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봉사나 복지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공헌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예술 감성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인들의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한 모든 사회 공헌 활동은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재고와 사회적 가치에 혁혁한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다양한 예술 및 예술 창업 활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 속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성장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 결과 : 아트워드 × 사회공헌사업 제안

이 코끼리는 조금 이상하지요



<그림 8> 장애친구의 코끼리 그림

이 코끼리 그림은 시각 장애를 가진 12세 소녀가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그린 그림이다.

아트워드는 시각장애 친구들의 미술 교육을 이끌어 온 비영리법인 <우리들의 눈>과 협업하여 예술굿즈(그림책)를 제작, 판매하여 기증하였다.

아트콜라보라는 말이 있다. 한젼마의 ‘아트콜라보수업’에서 말하듯이 예술과 협업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예술과 콜라보를 통해 스토리를 담고 가치를 높여 시너지를 낸다. 한젼마는 예술과 일상 모든 것과의 아트콜라보를 외치며 2020년 강원 키즈트리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행사를 성공시켰다.

이로써 예술의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이 스미고 번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 브랜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차례다. ‘창업가의 브랜딩’에서 이야기하듯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는 예술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9> 예술품 굿즈 사진

그리고 실제 기업 (주) 하이트진로음료와의 협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모색중이다. 제안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이트 진로음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

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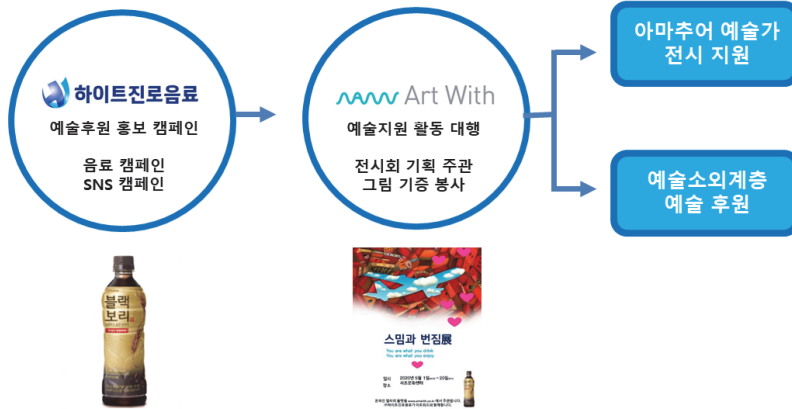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



선 한 에너지의
스밈과 번짐
확산 프로젝트

02

CSR 캠페인



05

내역		소	중	PER	수량	PRICE
작품구입비	30.0%	30호				
		50호				
에디션/굿즈 제작비	10.0%					
전시진행비	30.0%					
운송설치비	3.3%					
기획진행비	6.7%					
전시홍보비	6.7%					
인력운영비	작가파견	3.3%				
	자원봉사	3.3%				
예비비						

※ 2개월 단위 연 6회 전시/ 연6회 기증 기준
(격월 활동)

지금은 브랜드 시대.
기업 이미지는 곧 기업의 가치입니다.

- 많은 기업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더욱 가슴에 남는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 하이트진로음료는 소비자화 소통하는 브랜드입니다.
함께 마시고 같이 누리는 '문화'입니다.
예술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하며 성장합니다.

기업사회적 책임과 문화예술기여를 위한 쌍방향적인 마케팅전략전개

-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즐거움을 나눔
- 소비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함께 성장
-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책임의식
- 신뢰받는 기업,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리더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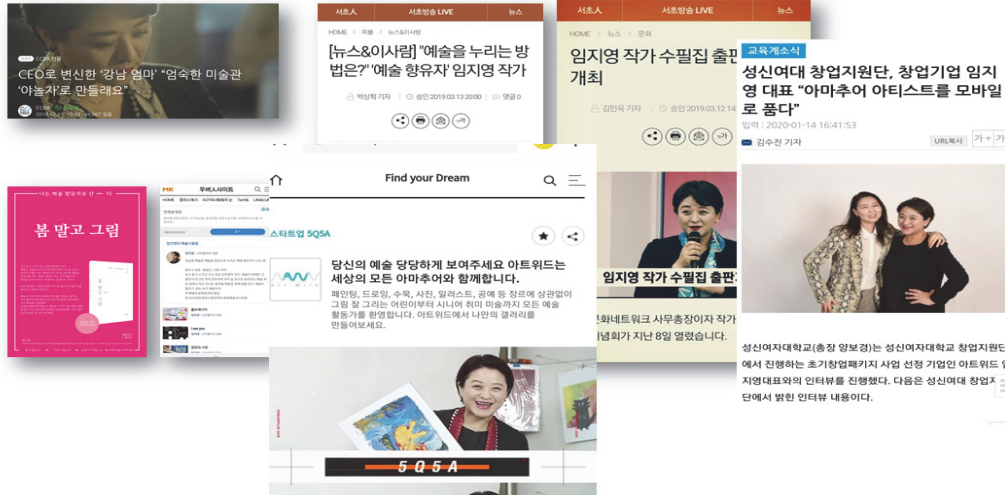
11



 **Spread**

You are what you drink
You are what you en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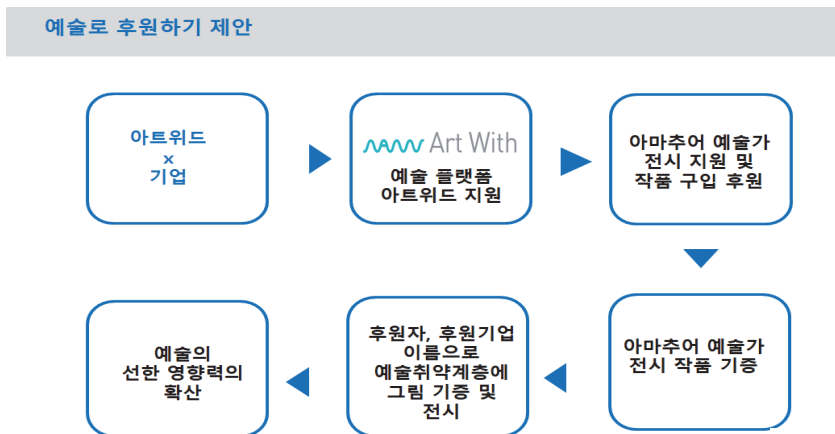
아트워드 매체 보도



<그림 10> 하이트 진로음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다음과 같이 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표 5> 아트워드 캠페인 제안



선한 예술 캠페인 제안



<https://www.artwith.co.kr>

IV. 결론

본문에서 밝혔듯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도 사회에 부응하여 여러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발성에 그치는 활동이 많고 무엇보다 실적과 보여주기
에 좋은 홍보성 활동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 공헌 활동의 지표를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복지란 그저 수혜 차원의 사회 공헌이 아니라 한사람의 인생에 공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제안으로 시작했으나
연구를 거치며 결국 예술 취약 계층이란 우리 모두가 아닌가 하는 통렬한
반성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예술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심도 있는 고찰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트위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가들의 전시 지원과 예술 취약 계층으로의
기증을 통한 예술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기관들도 문화 예술 마케팅이나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할 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보편 일반적인 니즈에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예술계를 위한 지원이 아닌 예술 향유층을 확산시키는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으로 유연한 기획이 부족할 때, 예술 창업이나 예술 벤
처등과 협업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공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들 중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 나라라고 한다. 비단 청소년뿐이겠나. 총체적 난국이다. 기를 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대기업 취업과 결혼 문제까지, 도대체 행복은 요원한 일이기만 하다.

우리는 너무 빠른 성장과 결과 중심 사회를 살았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피폐한 청년들과 라떼는 어른들이 넘친다. 과연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은 습관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강렬한 행복보다 자잘한 행복이 소소하게 계속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 복지는 필연적이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 소통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수많은 예술 활동에서 찾아낼 수 있다.

존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일상적 삶이 곧 경험’ 이라고 했고 ‘예술은 아름다운 경험’ 이 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곧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교육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서우석 김정은(2010) 문화경제연구 “문화격차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vol.13,no2,pp24.
- 정광호 최병구(2007) 지방정부연구 “문화격차분석과 문화마우처 정책설계”
초록페이지.
- 고영직 (2019)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도서출판 살림터.
- 조태준 (2019) “사회공헌의 국내사례연구” 한국사회공헌문화확산세미나
- 우승우 차승우 (2020) “창업가의 브랜딩” 도서출판 북스톤
- 빌올렛 (2014) “스타트업 바이블” 비즈니스 북스
- 박지영 (2020) “창업가의 생각노트” 가나 출판사
- 한젬마 (2020) “아트콜라보 수업” 비즈니스 북스
- 박신의, 장웅조, 이민하. (2020).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극복으로서의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론적 연구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3(1), 9-35.
- 문희원. (202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3(1), 71-101.
- 최유진. (201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4), 7-32.
- 장유리. (2013). 문화예술사회적기업 육성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483-484.
- 임지영 (2019) “봄 말고 그림” 도서출판 연두
- 임지영 (2019-2020) 매일경제 우버인사이트 예술칼럼
- 임지영 (2019-2020) 서초매거진 예술칼럼

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Social Value Effect of Art Entrepreneurship Activities

Name Im ji young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rt on society.

Art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re effective in realizing social valu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ctivities that are limited to single occasions.

Above all, it is often focused on performance and promotion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goal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a more long-term perspective.

Real welfare is not just a benefit to social contribution.

It is about contributing to one's life.

I think that in the futur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value and utility of art must be achieved.

Not just support for the art world,

It is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mankind by spreading the art enjoyment class.

※부록

임지영의 예술사용법 예술칼럼 연재 (매일경제 우버인사이트 2020년 5월~현재)

1) 예술이 답이다

수녀님은 명랑했다. 동그란 안경 속 두눈이 유쾌하게 반짝거렸다. 새감 마을 보육원. 충청도 예산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이다. 수녀님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은 깨끗했고 단정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그림 한 점이 걸려있지 않았다. 복도에서 푸른 빛이 다 바래버린 희멀건 바다 사진 액자를 보았다. 수녀님은 호기롭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도 떼어버려야돼요! 어린 유아들이 머무는 공간 복도 벽엔 온통 벽화를 그려놓았다. 보육원 전시 봉사를 다니다보면 그런 곳이 많다. 햇님 별님 커다란 도안들에 알록 달록 원색들로 온통 칠해 놓은 곳. 아이들이 사는 곳이니 강렬하게 빨주노초파남보 색칠해 놓으면 좋아할 줄 안 것이다. 하지만 한결같이 시각의 피로를 호소했다.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정신없대요. 매일 보다보니 어지러워요.

2년 전부터 뜻을 모은 분들과 보육원에 그림을 걸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먼저 답사를 가서 공간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돌아와서 작품을 선정하고 다시 방문하여 그림들을 건다. 펍 고된 일이다. 만만치 않은 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20군데쯤 전시 봉사를 이어왔다. 서울에도 보육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알음 알음 소개도 받고, 직접 연락도 하며 우리의 순수한 뜻을 전했다. 기관들은 처음엔 가우뚱 하는데도 많았다. 예술 봉사라고

하니 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어리둥절도 한 듯 싶었다. 하지만 차근 차근 설명을 듣고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가 딱 나오면 그 땀 한결같이 햇님 얼굴이 됐다. 복도의 알록 달록 벽화 속 햇님 미소도 그랬을까.

수녀님은 직접 담근 딸기청으로 만든 차를 내오셨다. 마시는 순간 달콤한 딸기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성질도 급하고 먹기도 좋아하는 내가 요란스레 감동했다. 색도 어쩜 이리 예쁘고 향도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수녀님은 탄력받아 딸기 얘기를 조금 더 하셨다. 그리고 이어진 보육원의 현실 이야기. 20세가 되면 얼마간의 자립 자금을 가지고 이곳을 나가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너무 어리고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너무 일찍 사회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떤 아픔이 한가득 올라왔다.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해서도 이럴 땐 공허감이 나도 모르게 솟구친다. 당장 생존 앞에 그림이 다 무어야, 예술이 다 무어야, 송구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술이 주는 좋은 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무용한 것의 가치를 부단히 전한다. 수녀님이 무거운 이야기들 끝에 짐짓 농담을 던지셨다. 제가 여기 군기반장이예요. 한참 크는 남자애들 잡으려면 목소리도 크고 힘도 썩어야하거든요! 수녀님은 사뭇 씩씩한 분이었지만 몹시 귀여운 얼굴에 조금 빠르게 이야기하는 천상 소녀같은 분이였다. 곧 그림이 걸릴 자리들을 신나서 안내해주시며 요기도 걸었음 좋겠어요, 조기도요! 단조로운 회색 옷이 데이지꽃처럼 상큼했다. 보육원에 다니면서 그런 딜레마를 겪기도 했다. 생존이라는 각박한 현실 앞에서 과연 예술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당장의 치킨 한마리, 예쁜 옷 한벌이 더 급한 게 아닐까. 그러다가 감성에 집중했고 그것이 주는 힘과 에너지를 깨달았다. 감성은 교육이 아니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을 걸어두면 그 앞에 잠시 멈춘다. 이 그림은 무얼 그린거지. 먼 바다로 나가는 크고 하얀 배, 언젠가 타보고 말거야 꿈도 생긴다. 분홍과 초록 무성한 아네모네꽃, 흔한 꽃도 예술이 되는구나 맘이 편해진다. 그 때다. 감성이란 녀석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은. 반짝이는 눈과 부드러운 맘을 가진 그 녀석. 생이 행복해지는 오만가지 비밀을 다 알고 있다. 그림 속에 바로 그가 있는 것이다. 수녀님이 배웅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큰 그네를 타며 소리 높여 웃고 있었다. 까르르 깔깔 봄을 불러대는 아이들의 목청이 더없이 싱그러웠다. 애들아, 예쁜 그림들 갖고 다시 올게! 기다려!

이제 아무리 먼 길도 웃으며 간다. 신나서 간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길. 예술로 키우는 감정, 그것이 답이다.

2) 수요일엔 미술관을!

마지막 수요일에 뭐하시나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문화야 일상이고 삶 속에 스며야 하는 것인데 이런 날을 만들어 문화 장려 운동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 삶이 딱딱하다는 얘기지요. 문화 예술 향유가 폭넓지 않다는 반증이고요. 물론 한류의 전성기라는 건 두 말할 나위 없지만, 문화 필드 전체가 BTS나 봉준호 감독에 물어갈 순 없죠. 문화 생활이라고 일컫는 일상의 이벤트는 거의 영화나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구요. 예술은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무엇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미술관들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면 맘 한구석이 안타깝고 애잔해지죠. 넓고 근사한 공간에서 텀블링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속속들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요.

문화가 있는 마지막 수요일마다 갤러리 탐방을 다닙니다. 서초구에서 동네 분들과 문화 예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5년째네요. 처음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의문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문화 예술 교육을 주관하며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도서관 축제도 직접 기획해보며 너무 즐거웠지요. 그러다가 좀 더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 하여 보육원에 그림을 기증, 설치해주는 문화 사랑 갤러리 봉사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 20여군데 보육원에 그림을 걸어주었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그림을 기증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보육원에 답사를 다녀오고, 어울리는 그림들을 모으고, 30여점 신고 다시 가서, 미리 정해둔 위치에 그림들을 하나씩 걸어 나가죠. 서울, 부산, 상주, 화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답니다.

이유는 딱하나, 내 맘이 기뻐하기 때문이죠. 봉사도, 예술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나머지 내 마음의 상태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욱 집중합니다. 아름다운 미술관의 유명한 전시회를 가셔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줄까지 서가며 전부 다 보느라 (보는 척 하느라) 몹시 피곤해지죠. 가뜩이나 뭐가 뭔지 모르겠는 현대 미술 작품들 앞에선 자못 심각해지다가 셋눈으로 얼른 제목을 보니 아뵘썩! <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쫄지 말자고요. 주눅들지 말자고요. 예술에 굳이 거창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걸려있는 그림 욕심내고 다 볼 필요도 없으며, 모든 건 내 마음이고 내 자유라고요.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유중아트센터에 다녀왔어요. 일본작가들의 4인 4색전이 열리고 있었죠. 아직까지 예술계에서 일본 문화 예술은 낯설고 때론 이단적이죠. 가장 가까이 있어도 역시 우리는 달라 수궁이 되기도 하

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요이 쿠사마의 호박들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나라 요시토모, 미스터에 이르기까지 일러스트와 예술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시를 접하며 드는 확실한 생각은, 일본은 우리들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예술에의 진입 장벽도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침없는 표현과 그림의 도발에 우리는 일종의 통쾌한 재미를 느낍니다. “이것도 예술입니까?”에 “당연히 예술입니다.”로 넓은 아량을 훈련시키며 범주를 넓혀갑니다. 2층에 위치한 유중 아트홀은 클래식 공연장을 갖춘 근사한 공간입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객석과 거의 평행으로 배치되어 위압적이지 않고 다정한 기분이예요. 아마 예술이 일상속으로 스며들길 바라는 게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함께 간 우리 선생님들은 소녀들처럼 그림에 닥지닥지 붙어서 호호깔깔 난리가 났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던 일본의 그림들이 웃기고 재밌다고요. 저는 소녀들같은 그 모습에 또 배서서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림을 볼 줄 몰라서” “나는 예술에 문외한이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제는 예술 앞에 주눅들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즐기고 자유롭게 느낌을 나누며 한껏 즐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죠. 아름다운 공간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편하게 예술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날이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넓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도처에 있습니다. 미술관 피서. 강추합니다.

3) I SEE YOU

나의 인생 영화 아바타에서 질투른 눈동자로 깊게 응시하며 하는 한마디. I see you. 그렇게 모든 것들은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영감도, 인생도 내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믿었다.) 잎새에 이는 바람보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다이아몬드에 눈부시다 매료됐다. 나무의 거칠은 등결보다 꽃 송이송이 화려한 분홍 노랑을 먼저 감각했고 그들은 모두 너무 아름다웠다. 눈을 빛내며 보는 게 좋았다. 그렇게 모든 감각은 시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었고 확신해 마지 않았다.

한 전시를 세 번 보러 왔다. 처음 있는 일이다. <빛나는 눈들>전시회. 프리즘 프라이즈라는 전국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의 전시회다.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나도 모르게 와아! 소리가 이어졌다. 강렬한 색감과 단순한 형태가 전해주는 감흥은 색깔만큼 선연해서 마음이 금세 사로잡힌 느낌. 시각 장애 친구들의 작품이어서 부족하거나 어설퍼도 응, 괜찮아, 그래 그래 봐주려던 나의 편견이 심히 부끄러워지며 단박에 깨져버렸다.

두 번째 볼 때는 그림 속 이야기가 들렸다. 한 명 한 명 분명하고 열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빛나는 밤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아이, 한여름의 뜨거운 싱그림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 온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발산하는 아이.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꿈을 그리고 자신을 찾았다. 오히려 눈이 보이는 아이들은 꿈도 나도 잘 찾지 못한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색깔들이 즐비한 속에서 계속해서 망설이고만 있다. 이 색깔 저 색깔 덧칠하다 보면 결국 검정일 뿐, 나의 첫 마음 색은 무엇이었는지

아득해져 버린다.

세 번째 보러 와서는 함께 전시되고 있는 자료집을 다 읽었다. Another way of seeing. 책을 보는 내내 나의 무지몽매와 무관심이 부끄러워 마음이 습벅 습벅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아예 인지하지 않았다. 시각 장애는 다만 불쌍한 것이고 안됐구나 연민할 것이었지 그들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완전히 간과했던 것이다.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의 교만이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도, 밀려오는 파도의 새하얀 포말도 이 아이들이 백배는 더 잘 보았을 것이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래된 화두이고 계속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피상적인 삶이 아닌 본질에 천착하고 싶다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외연과 깊이에 더 파고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시각 장애를 단지 장애만으로 인식해버린 나의 편견이야말로 마음의 장애다. 세상을 보는 방법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 모두 고유하며 유별하다. 그 유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는 차별없이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시각 장애를 다소 비하한듯한 이야기를 프로젝트로 만든 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감동이다. 실제로 시각 장애인 분들이 태국 코끼리 공원을 찾아가 직접 그들을 만나고 부딪혀 감각하고 재현해 낸다. 그 결과물은 그대로 예술이 됐다. 말초적으로 감각된 코끼리, 마음의 눈으로 재현된 코끼리. 세상 어떤 코끼리보다 자유롭고 근사하다. 진짜 예술은 이런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아, 자꾸만 마음이 울긋불긋해진다. 이 가을 나도 시시때때로 눈을 감고 온 몸으로 감각할 것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 우스스 웃는 소리가 들릴거다. 나무의 잔뜩 거친 삭정이가 그래도 다정하게

안아줄거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을 나도 마악 깨달은 것 같다. 이제 서야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I see you.

4) 꽃길을 가려면 꽃부터 심어야한다

작가라고 하면 낯설다. 하릴없이 예우해주는 것 같아 지레 부끄럽고 송구하다. 그러면서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주 오랜 습관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재밌어하는 취미니까. 쓰기를 한 지는 오래됐다. 어렸을 땐 일기, 커서는 연애 편지, 애 키울 땐 단상, 책을 한 권 내고는 내멋대로 길게 죽죽. 일기로 사람 여럿 놀래켰다. 학창 시절 내내 상을 받았는데 일기에 써둔 독후감, 시 등 그런 것들로.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는 줄 알고 반대를 무릅쓰고 문예창작과에 갔는데 가보니 다 신동들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상도 안주고 칭찬도 안해줬다. 송곳같은 젊음을 해가지고선 햇줍살이 가득찬 가마니 한 가운데 같았지. 나의 실력이란 그저 교내 백일장에서 조금 튀는 단어 몇개 갖고 선생님을 홀리는 알팍한 수준이란 생각에 글을 냈다. 대신 사랑을 했다. 애쓰며 했다. 그 땐 왜 그렇게 갖은 애를 썼는지. 지금같은 마음이면 열 번도 더 했을 걸. (웃음) 애 키우면서는 솔직히 쓸 여력이 없었다. 미워지는 글씨만큼 뼈뿔뼈뿔한 날들이어서 다이어리에 세줄 단상도 겨우 썼다. 그렇게 시간의 강을 타고 정신없이 흘렀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책까지 썼다.

“쓰는 사람은 작가고 그리는 사람은 화가죠.“

늘 한결같은 그녀가 나의 불 빨간 정체성을 단박에 끌어올려 주었다. 마음에 소심한 흥조가 가시고 튼튼한 용기가 깃들었다. 아, 말로는 당당한 아마추어가 되자고 외치면서 정작 진짜 마음으로부터는 자신없어 했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이제 비로소 가마니 한가운데에서 스크르 미끄러져 나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잔뜩 만났다. 아마추어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아트위드를 만들고 첫 전시를 기획했다. 아무리 온라인 개인 url 갤러리라고는 하지만 예술은 스킨쉽이다.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직관과 감각의 영역이다. 전시의 기회나 소통의 창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나와 똑같았다. 예술가라고 칭하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친다. 너무 민망해하고 송구해한다. 좋아서 그려 온 사람들, 재밌어서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추어를 모았다. 그저 취미였거니 했는데 한 분 한 분 작품같은 인생이 쏟아졌다. 이번 전시는 처음 시작이니만큼 정체성을 담고 싶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과 함께해 온 삶이 궁금했고 그게 진짜 예술의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열렬한 큐레이터와 정성껏 그림을 걸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프닝을 준비했다. 언제나 그렇듯 큰 수고로움은 없었다. 마음 맞는 몇이만 있다면 아마 당장 동계 올림픽도 치를 걸.

아흔, 안완숙 선생님은 일흔에 그림을 시작하셨다. 남들은 인생 정리할 나이에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가장 좋은 친구라면서 해맑게 웃으시는데 모두 울컥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국윤서는 엄청난 창의와 감각과 패션으로 모두를 깜짝 놀래켰다. 정말 한마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응원했다. 심한 약시로 시력이 거의 안보이는 박찬별은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특별한 시각을 알려주며 깨달음을 주었고. 영국에서 의대를 나와 의사를 하던 임지유는 사유하는 동화 일러스트로 따뜻한 슬픔의 힘을 돌아보게 해줬다. 미대 나온 실력을 푹푹 썩히던 큐레이터 이소연은 새로운 소재와 장르인 레진 아티스트로 첫 출발을 했다. 그리고

전자공학도 출신으로 내내 지붕을 그려오고 있는 이다정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 모른 채 맑고 밝았다. 또 가족들 모두 꽃다발까지 들고 출동한 어느 변호사의 뿌듯한 미소, 길고양이 일러스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윤가진의 입을 가린 부끄러운 미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의 그림을 함께 보았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세상 다정한 마음이 되어. 내가 바라고 바라던 광경이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그림을 함께 보는 것. 그림 속 나를 만나고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예술, 먼 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발견하는 것.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의 꽃같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작은 꽃길을 내보겠다고 삼을 들긴 했지만 막막하고 어려운 일 투성이다. 첫 삼은 어찌어찌 잘 봤는데 짱짱 언 땅도 있을테고 군데군데 돌덩이도 만날테다. 그 땐 어떻게하지 지레 겁 먹지 않는다. 첫 전시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어린 감사와 가슴벅찬 감동이 앞으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내가 제일 잘 하는 게 과정을 즐기는 일이기도 하고. 그림 보고 글 쓰고 잘 먹고 잘 걸으면서 좋아하는 꽃씨 한톨씩 한톨씩 뿌리고 다니지 뭐. 어쨌든 기다리면 시간과 햇살과 다정한 사람들이 꽃을 피워줄거니까. 나는야 꽃을 심는 임작가라네! 막 이래 우기고 뿌듯해하면서.

5) 갤러리에도 쿵(COOP)이 있습니다

글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 박재웅 작가님께 불췌간 문자가 왔어요.

—임선생님, 갤러리쿵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실 일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감염의 시절이라 망설였을 마음이, 신중했을 마음이 글자 하나 하나에 똑똑 묻어 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짧은 문장에도 마음이 금세 드러난다는 것이요. 어쩌면 사소한 것일수록 진짜 내가 들어 있는 법이죠.

—지나갈 일은 없지만 굳이 애써 갈게요!

오프닝 시간보다 일찍 그 곳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곳. 갤러리 쿵 (한국화가협동조합) 말이죠.

예술과 협동 조합, 어울리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합이라 하면 사회와 경제 활동에 긴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같지요. 그래서 예술과 조합은 조금은 생소한 조합같고요. 워낙 예술이 예로부터 독야청청하다보니 만수완 드렁춰처럼 얽혀야 하는 조합이 안팎으로 낯설 밖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술과 조합이라니! 화가와 협동이라니! 어딘가 인지부조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곳은 알수록 신통방통했습니다. 1년 365일 조합 화가들의 전시를 하고, 물론 작가를 뽑는 방식도 엄정하기 이룰데 없습니다. 예술적 영감을 위한 작가 세계 여행을 후원하고, 매달 <미술 사랑> 잡지를 발간하며, 여느 상업 화랑보다 열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작품들도 판매합니다.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황의록 이사장님이시죠. 정말 미스테리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님으로 더 좋은 제안들도 다 뿌리치고 오직 그림에 미쳐 그림의 그림에

의한 그림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림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기치를 내걸고 길이 번드르르한 삶보다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계시죠. 처음부터 단번에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심은 더 깊어졌죠. 제가 보고 있는 그림 앞, 바닥을 엄청 열심히 쓸고 계셨거든요. 박재웅 작가의 거대한 파의 인생 앞으로 이사장님의 인생도 빗자루를 타고 엉덩이 썰룩 지나갔습니다. (웃음)

작년에 이사장님이 불쑥 전화를 하셨죠.

—우리가 전국 초등학교에 그림 걸어주는 봉사를 하려고 해요. 어떨까요?

그 때 나도 한창 전국 보육원들에 그림 걸어주는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술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굿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셨죠.

벽차게 좋았습니다. 나는 예술 자체를 좋아한다기 보다 예술이 지닌 순전한 감성을 좋아합니다. 감성은 곧잘 전이되고 널리 공감되거든요. 코로나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강력한 전파력입니다. 나는 이 좋은 마음이 선순환 되는 것이 그리 좋습니다. 이제 강원도의 초등학교들부터 그림이 전시된다고 해요. 예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싱싱한 대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시듭니다. 다시 시간이 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계속 시간은 갑니다. 제행무상.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술은 여기 남습니다. 파 한단의 정물을 그리기 위한 깊은 응시, 맑은 마음, 기나긴 고요가 함께 남습니다. 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이

토록 가만한 세계라니요. 잠시 숨을 고릅니다. 파 한단의 사유. 나는 이런 사소한 깨달음이 참 좋습니다. 사소하지만 위대하고 소소하지만 창대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예술 담론을 밑도 끝도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도 생의 축복일테죠.

빛자루가 몹시 잘 어울리는 이사장님이 늘 그렇듯 배움을 해주셨어요. 나는 늘 그렇듯 손을 안녕 흔들며 또 올게요! 특별하고 알찬 잡지 미술 사랑도 쫓 쟁겨오고요.

갤러리콧은 그림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나가는 한국 화가 협동조합입니다. 365일 우리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6) 학교가 있는 언덕

높은 데 올라본 사람은 안다. 멀리 있는 것들의 아득함, 떨어진 것들의 애뜻함. 높이와 거리가 주는 생경하고도 우월한 기쁨. 공기는 달근하고 바람은 왜 그리 시원한지. 저 멀리 낡은 집들의 빛바랜 처마도 낭만이 된다. 높은데서노라면 잠시 무거운 생도 일상도 경계없는 하늘처럼 푸르고 멀다. 기쁨 것도 슬플 것도 없을 것 같아, 이 곳에선. 문득 누가 거두지 않아도 혼자 초록으로 무성해진 난간의 화분에 눈이 간다. 먼데로만 향하다 바로 곁 푸른 것에 다정한 심사가 된다. 홀로 애썼구나 싶어 나인양 품에 들인다.

손상기 작 '학교가 있는 언덕'은 마음을 높은 데로 데려간다. 아주 먼데로 그러다가 바로 눈 앞으로 마음 속으로. 척추 장애로 인한 낮은 시선은 그를 더 높이, 또 깊게 보게 했을 것이다. 그만의 탁월한 시선으로 풍경을 재발견했고 예술로 재구성했다. 이 작품은 BTS RM이 소장하고 있다. 처음에 손상

기 작품을 소장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 사람들은 예쁘고 밝은 것만 보고 싶어한다. 특히 그림은 더 그렇다. 손상기의 서정은 깊은 비애가 깔려 있다. 슬프고 아름답지. 쓸쓸한데 따뜻하고. RM은 바로 그 마음을 파고드는 서정에 매료됐다고 한다. 가장 화려한 곳, 현란한 곳에서 자세히 굽어보는 나의 마음. 아마 이 그림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놀라운 청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전 청소년들에게 미술 서적을 보내는 일에 써달라며 1억을 기부했다. 예술 감수성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아마 본인으로부터 확신을 얻었으리라. 문학도를 꿈꿨던 아이는 커서 전세계 사람들이 우러르는 아티스트가 됐다.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던 소년은 자라 예술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는 BTS가 됐다. 한 사람의 예술 감수성이 시대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얼마전 강원도 고성외 초등학교 세군대를 다녀왔다. 초등학교에 만들어지는 작은 미술관을 직접 보기 위해 시간을 냈다. '학교안 작은 미술관' 사업은 화가협동조합이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하는 예술 기증 사업이다. 예술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 예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교육청 장학사 한분이 말했다.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림을 건다고 아이들에게 뭐가 크게 좋기는 한걸까.”

향유자를 자처해 온 내가 바로 답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림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일상에서도 좋은 걸 먼저 발견하게 됐고 인생도 그렇게 됐지요. 그림을 들여다보는 순간 감수성이 자라고 차곡차곡 쌓인 덕분이겠죠. 그림이 있는 유년,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행운이었어요.”

그림 한 점, 별 것 아닌지 모른다. 잠시 머무르거나 스쳐가거나 큰 의미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림 한 점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BTS를 있게 한 감성의 단초가 됐다면. 그림 한 점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긍정 체질을 갖게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늘 얘기하지만 예술은 교육이 아니고 환경이다. 매일 숨쉬듯 그림 앞을 지나고 사랑에 빠지듯 그림 속에 폭 들어도 가보고. 높은 데도 올라보고 멀리도 떠나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마음 깊숙히 안아주고.

강원도의 초등학교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아름다웠다. 산이 푸르고 바다가 가까웠다. 마치 손상기 작품 학교가 있는 언덕처럼 맑고 시원했다. 그림이 걸린 학교는 자연 속의 미술관 같았다. 아이들이 고새 까르르 거리며 그림 앞에 모여들었다. 선생님들도 하하 웃으며 그림 앞에서 즐거웠다. 이 한낮의 웃음이 무엇이 될까. 즐겁고 신선한 이 예술적 경험이 대체 무엇을 만들까. 이 안에 미래의 BTS있다. 단언컨대 그럴 것이다.

7) 세상의 모든 예술은 선순환입니다

소유에 초연한 편이다. 본성이 착해서는 절대 아니고 외려 게을러서가 맞

졌다. 욕심부린다고 내 것이 되지도 않거니와 마음만 괴로워진다는 걸 일찍 깨쳤다. 되도록 느긋했고 포기도 빨랐고 안되면 딴 거 하라! 외쳤다. 다 나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성공이나 성취와는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그랬다. 물론 오해가 생겼다. 워낙 사는데 여유가 있으니 그렇지. 아쉬울 게 없으니 저렇지. (웃음)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어이 없어했지만, 이제는 그리 보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을 한다. 가만히 돈 버는 일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부유를 증명하려고 명품을 휘감는데, 나는 명품도 별로 없이 넉넉한 오해를 받는다니. 공으로 얻는 삶의 부유다. 그 대신 경험에는 욕심이 꽤 많았다. 보고 듣는 일, 직접 체감하고 체득하는 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야 할 누님 같은 나이에 세상은 호기심 천국이었다. 아는 사람이 해본 사람 못 이긴다며 부득불 가능한 해보고 다녔다. 오십을 앞두고 대학원까지 갔으니 말 다 했다.

갤러리를 하면서도 그림 사라 소리는 잘 못했다. 소유 개념이 투철하지 않다 보니 굳이 예술을 가져야 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예술은 그저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라 여겼다. 그러다 보니 누리고 즐기는 데는 도통했다. 아름다운 갤러리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림과 문학과 영화 관련, 작은 강좌들을 열고 닫으며 재밌어했다. 그리고 몇 해 전, 예술 봉사를 시작했다. 나는 지극히 개인주의자고 탐미주의자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번 생을 산다. 그런 내가 봉사에 몰입할 줄 몰랐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리 헌신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런데 내게 있어 봉사는 남을 돕는 게 아니다. 나를 돕는 일이다. 게으르고 무심하고 자칫하면 인생 심드렁에 빠질지도 모르는 무기력자를 달구는 일이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했다. 한량이 딱 적성이었다. 그런데도

늘 예술은 아름답지만 현실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고민을 해왔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고 잘 누리고 즐기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문화 예술 교육을 주관하고 모임을 함께 하며 문화사랑 갤러리 봉사를 하게 됐다. 예술 소외 지역인 전국 보육원에 그림들을 기증하고 걸어주는 일이다. 물론 만만치 않게 품이 가는 일이다. 맘이 쓰이는 일이다. 나도 그림들을 기증했고, 작가들과 후원자들에게 작품을 기증받았다. 그리고 보육원을 정하고 답사를 가서 설치할 공간을 정한 후 직접 고른 작품들을 싣고 가서 설치한다. 지금껏 전국 20곳 넘는 보육원에 600점이 넘는 그림을 걸어주었다. (와우!) 고백하자면 늘 신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이라고 항상 힘이 솟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무용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니 바보인가 생각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또 여러 선생님들과 즐겁게 그림을 고르고, 먼 길 떠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쩌면 중독된 것도 같다. 보육원의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와, 이 그림 너무 예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 앞에 다다다다 붙어 활짝 활짝 웃을 때 비로소 예술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다. 삶의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기에 인생의 진짜 탐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기꺼이 흔쾌히 쓰는 것이지. 실로 오랜만에 대관 전시를 열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보육원 전시 후원을 위한 문화사랑 갤러리 첫 전시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전시회 뒤에는 노동이 숨겨져 있다. 전시할 그림을 고르고, 옷을 입히고, 리셉션에 쓸 방울토마토, 청포도, 적포도 색색가지 과일컵을 만들고, 밤늦도록 그림을 걸고. 첫 전시회니만큼 걱정도 많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또 즐거이 준비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진심과 열정뿐이었지만 그거면 충분

하다 여겼다.

최고의 예술 사용법은 간단하다. 서로 나누는 것이다. 함께 향유하는 것이다. 소유는 그다음 문제다. 향유하다 보면 소유의 단계가 반드시 오므로. <기생충>을 보고 그 의미와 씩씩함을 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창령사 터 오백나한>전을 보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뉘 본다. 핸드폰보다 서로의 눈을 더 오래 들여다보며 대화하다 보면 뜻밖의 새로운 당신을 만날 수 있다. 초록이 무성해가는 여름날 벤치 아래 두 사유는 깊어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미 나한, 즉 깨달은 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면 조금씩 체질이 바뀐다. 예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누다 보면 사람도 지그시 응시하고 수용하는 힘이 생긴다. 삶과 사람에 유연해진다. 이것은 진짜 세상 살기 유용한 자세다. 내 멋대로 예술 사용법을 주창하고 있지만 결국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술을 긍정하기 시작하면 좋은 기운이 깃든다. 인생이 부유해진다.

마음을 모으고 합쳤던 전시회가 끝났다. 말간 진심이 닿아 많은 분들이 마음과 뜻을 포개주셨다. 목포, 화천 등 멀리 보육원 원장님들도 달려와 주셨다. 그림을 선뜻 기증해주신 화가님들도 많이 와주셨다. 모두가 서로 고마워하며 손을 잡았다. 놀랍도록 따뜻한 광경이었다. 각박한 시절이다.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다만 예술의 힘을 믿는다. 그림 앞에 가만히 멈춰 설 때 반짝하는 사유의 불꽃을 믿는다. 그 무용하게만 보이던 무형의 가치가 불러오는 생의 온기와 성장을 믿는다.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도 외치게 된다. 이렇게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뉘요! 세상의 모든 예술은 선순환된다.

아트위드는 “세상의 모든 아마추어와 함께합니다”



페인팅, 드로잉, 사진, 일러스트, 공예 등 장르에 상관없이
그림 잘 그리는 어린이부터 시니어 취미 미술까지
모든 예술 활동가들과 함께합니다.

아트위드에서 나만의 URL 갤러리를 만들고
나의 예술을 당당하게 전시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전시회가 열리고, 예술 등용문으로 도약합니다.

<https://www.artwith.co.kr>

“당신의 예술,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아트위드는 “예술의 선순환 플랫폼입니다!”

아트위드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와 MOU를 맺고 전국 50군데 보육원에 그림 1,000점 기증, 설치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예술소외 지역을 찾아 선순환을 계속할 것입니다.

각 기업, 기관등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공헌의 가치 안에서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 소외 계층을 위한 예술 도네이션이 실현됩니다..

아트위드에서는

- # 위치 기반 가까운 미술관 찾기 서비스와
- # 디지털 프린트, 예술 굿즈 제작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가치있고 의미있고
지속 가능하며
우리 마음을 파고 드는
예술 후원 프로젝트

아트위드와 함께 하면
기업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